

고교동문 리턴매치에 전직 시의원 가세

광주 북구갑

광주 북구갑 선거구는 고교 동문간 경선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정준호 변호사와 '풀뿌리 지방자치'를 경험한 문상필·진전기 전 광주시의원들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준호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조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어 한 차례 패배한 뒤 설욕전을 버리고 있어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진 전기 의원은 제외하면 모두 지역구에 소재한 광주 동신고 동문들이다.

조오섭 의원은 6·7대 광주시의원고 대통령직속 지방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뒤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첫 입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만성 정세구간이었던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광주역 국가혁신지구 지정 등 굵직한 북구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공동발의를 이끌어내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도 주목 받았다. 당내에서는 원내 대변인, 대선 선대위 대변인,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등을 역임하는 등 '민주당의 입'으로 불리며 윤석열 정부와 맞서는 등 당내 활동도



조오섭 김주업 문상필 이동국

활발하다는 평가다.

이에 맞서는 정 변호사는 지난 총선 경선에서의 설욕을 다짐하며 바닥 민심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지역을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도전중이다. 최근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지역구인 무등도서관 사거리로 옮기고 지역 주민과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문상필 전 시의원도 공천 경쟁에 나선다. 조 의원과 고교 동문인데다, 6·7대 광주시의원을 함께 해온 문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특보단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국 장애인 조직 확장과 결집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전기 전 광주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후보로 나섰다. 내년 총선에서는 북구갑 선거구로 바뀌어 출마를 준비중이다. 그는 5·6대 광주시의원을



정준호 진전기

북구갑 선거구에서 지냈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경제특보를 지냈고, 현재 건설업체 CEO다. 국민의힘에서는 광주 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북구의원 출신인 이동국 NU산업대표이사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의사 출신·검사 출신... '친명' 후보들 경쟁

광주 광산갑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 선거구의 관전포인트는 현역인 이용빈 의원과 전 광주고검장 출신의 박군택 변호사(이재명 대표 법률 특보)와의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경쟁이다. 민주당에선 현재까지 재선 도전에 나서는 이 의원에 맞서 박 변호사만이 출전 준비를 갖추고 있어 이들의 1대1대결이 지역정가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특히 두 명 모두 '친명계'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이 의원은 24일 간의 단식을 해온 이재명 대표의 주치의 역할을 자처했고, 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패로 나선 변호인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민주당 '호남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인사로,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초선임에도 당내에서 원내부대표, 민주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상임부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당내 기반을 튼튼히 다져 온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려인 등에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



이용빈 김정현 박군택 정희성

한 재외동포 포용법 등의 입법활동도 활발하게 해왔다. 그는 8년 동안 지역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역구 수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 의원에 맞서는 박군택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으로, 이른바 이재명 당 대표의 법률특보를 맡아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광주 광산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검찰 개혁 실무를 책임졌다. 현재는 민주당 정치탄압 대책위 부위원장과 당 대표 법률특보로 활동하며 윤석열 정부의 과잉·보복 수사에 적극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고형인 광산구에 법무법인 '광산'을 설립해 법률 상담과 자문 등 지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정현 전 광주시당위

원장이 출마한다. 내년 총선을 통해 광주에서 최소 1석 이상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는 목표인 만큼 직접 나선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중앙당을 오가며 국립광주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유치와 송정역 광장 조성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국비 예산 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인지도도 높여가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황경순 금호타이어노조 위원장이, 진보당에서는 정희성 진보당 공동대표가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지역 내 '진보 표심'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권일 기자 cki@

이형석·전진숙 경선 대결...여야 대거 출사표

광주 북구을

광주 북구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도 경선이지만, 여야 정당 후보들이 대부분 출사표를 던져 본선 대결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형석 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김세미가 전 국회사무처 정책 비서관, 전진숙 전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조현환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가 경선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사회조정 비서관, 민주당 최고위원(원외), 광주시 경제부시장, 광주시의회 의장,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행정·정치 경합이 풍부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하며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호남고속도로 확장, 첨단 3지구 경찰서 신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등 자신의 공약이자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리턴매치에 나서는 전진숙 전 행정관은 지역 여성 정치인 최초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광주 토박이 여성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는 광주에서 시 민사회 활동가로 시작해 북구의원, 광주



이형석 김세미가 김인숙 윤민호

시의원,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다. 청와대 행정관 재임 시에는 사회혁신 플랫폼 등 지역·사회혁신 전국화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김세미가 전 비서관은 지역에 (사)디지털시대공감을 설립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밥상' 봉사과 '어르신 디지털 훈민정음 교육'을 진행하면서 바닥 민심을 넓혀가고 있다. 당원 중심의 민주정치 실현을 전면에 내세운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조현환 공동대표도 공천 경쟁에 나선다. 국민



조현환 황순영

의힘은 북구를 당협위원장인 김인숙 호남사랑 이사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전남도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정의당은 광주시당 위원장을 지냈던 황순영 정의당 북구지역위원장이 나서고, 진보당에서는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지낸 윤민호 북구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출마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형배 재선 도전...경선 후보들 단일화 변수

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민 의원과 지난 2020년 경선에서 한 차례 맞붙었던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박시중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거론되면서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여기에 '정치 신인'인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산구 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도 출마의 뜻을 밝히면서 당내 경선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 의원에 대해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단일화 논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단일화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당을 탈당하면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었지만, 최근 북당과 함께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나서고 있다. 민 의원은 민선 5·6기 광산구청장을 지내며 여전히 탄탄한 지역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이재명 호위부사' 역할을 하면서 당내에서도 입지가 확고하다는 평가다. 김 전 대변인도 출마 준비를 갖추고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그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딛 뒤 이후



민형배 김성진 김용재 박시중



안태욱



정재혁



전주연



최치현

27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경제국장 겸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산업통'이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도 역임하면서 중앙과 지역 경제계의 폭넓은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박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에서 민형배 후보를 제쳤으나, 권리당원 불법조치 문제로 재경선이 이뤄져 민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뒤 와신상

담하고 있다. 정 전 선임 행정관은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선임 행정관 등 국정 전반을 거친 풍부한 정치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태욱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 이사가, 정의당은 김용재 중소상공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이 출마한다. 진보당은 전주연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처장이 출사표를



지구와 함께 살기 배우고 실천합니다

전남교육청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기후변화 환경교육 857교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 100교

탄소중립 선도학교 51교
도시형 학교숲생태놀이터 10교